

‘미친 호랑이’ 新바람

KIA 8경기 140안타·팀타율 0.420...평균 득점 13.9점

8경기 연속 두자릿수 득점...ML 기록 넘어
1이닝 12득점·11타자 연속 안타 ‘대폭발’
최형우 0.636...무려 6명이 4할 타율 이상

■KIA 선수들 최근 8경기 성적 (5일 현재)

선수명	타율	타점	득점	출루
이명기	38타수 17안타(0.447)	8	10	1
김주찬	35타수 15안타(0.428)	9	8	1
버나디나	33타수 13안타(0.394)	13	20	3
최형우	33타수 21안타(0.636)	21	19	3
안치홍	32타수 11안타(0.343)	8	7	1
나지완	25타수 10안타(0.400)	9	8	3
서동욱	22타수 10안타(0.454)	10	9	2
이병호	30타수 14안타(0.447)	15	9	3
김민식	24타수 7안타(0.292)	6	5	1
김선빈	28타수 13안타(0.464)	7	8	

‘메가 타이거즈포’가 kt 위즈를 겨냥한다. 원정 9연전에 나선 KIA 타이거즈가 수원에서 불꽃 같은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지난 주중 삼성 라이온즈와의 홈경기에서 46득점으로 3연승을 만든 KIA는 6월 30일 LG 트윈스와의 잠실 경기를 시작으로 원정 9연전을 소화하고 있다. 6일까지 SK 와이번스와 주중 3연전을 치른 KIA는 7일부터 kt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호랑이 군단’의 여정에는 기록이 함께 하고 있다. 6월 29일 삼성과의 경기가 기록 행진을 알리는 서막이었다. 이날 KIA는 3회 선발 전원 안타는 물론 선발 전원 득점까지 완성한 뒤, 팀 한 경기 최다득점(22), KBO 역대 한 경기 최다 안타(29) 타이 기록에 이름을 올렸다.

그리고 KIA는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는 신기록을 만들었다. 타이틀은 ‘연속 경기 두 자릿수 득점’. 지난 1일 LG에 10-4 승리를 거두면서 5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KBO 신기록을 작성한 KIA는 2일에도 13-4승을 신고하며 기록을 갈아치웠다.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이 세워졌던 이 날 KIA는 정규이닝을 다 소화하지도 않았다. 7회 2사에서 비로 강우 콜드가 선언되면서 8·9회는 뛰지도 않고 신기록을 ‘6경기’로 연장했다.

4일에는 야구의 보고장인 미국 메이저리그를 뛰어 넘는 7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세계 기록을 만들었다. MLB의 연속 경기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은 6경기. 1929년 뉴욕 양키스가 6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을 세운 적이 있다.

KIA가 세계 기록을 작성하는 데 4이닝이면 족했다. 1회부터 김선빈·버나디나·최형우가 안타 행진을 하면서 2-0을 만들었다. 나지완의 투런까지 더해 4-0.

2회에도 1사에서 김민식의 2루타에 이어 31경기 연속 출루를 알리는 이명기의 적시타가 나왔다. 김선빈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2루에서는 버나디나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6-0. 상대 선발 켈리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첫 타석에서 3루타를 때려낸 최형우가 중앙 담장을 넘기면서 3타점을 만들었다.

3회 잠시 쉬어간 KIA의 득점 행진은 4회 재개됐다. 켈리에 이어 3회부터 마운드에 오른 김태훈이 몸에 맞는 볼과 볼넷으로 버나디나와 최형우를 내보냈다. 안치홍이 헛스윙 삼진으로 돌아섰지만 첫 타석에서 홈런을 날렸던 나지완의 우측으로 공을 보내며 2루까지 향했다.

그 사이 2루에 있던 최형우가 홈에 들어오면서 KIA의 10번째 점수가 올라갔다. 나지완의 타점, 최형우의 득점으로 6월 27일 시작된 KIA의 연속경기 두 자릿수 득점 기록은 ‘7’을 향했고, ‘호랑이 군단’은 세계 야구사에 이름을 남기게 됐다. 또 KIA는 이날 15-6의 승리로 7연승까지 내달렸다.

KIA의 질주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5일 연승 행진은 중단됐지만 두 자릿수 연속 득점소는 계속됐다.

여기에도 1이닝 12득점이라는 신기록이 담겨있다. 그것도 1-12의 승부를 단숨에 뒤집는 상상을 초월하는 공세였다.

KIA 선발로 나선 팻데이 ‘출루 군단’ SK의 한동민, 김동연, 로맥에 한방을 허용하면서 3회 8실점을 남기고 마운드에서 물러났다. 4회초 이날 왼쪽 어깨 통증으로 말소된 심동섭을 대신해 콜업이 된 우완 김중훈이 등판했다.

김중훈 역시 한동민에게 투런을 허용하는 등 SK의 공세가 계속되면서 4회가 끝난 뒤 점수는 1-12

가 됐다. 뜨거웠던 KIA의 두 자릿수 득점 행진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보고도 믿지 못할 5회가 전개됐다.

버나디나의 볼넷이 신호탄이었다. 최형우가 좌중간 담장을 넘기며 SK의 홈런 공세에 응수했다. 안치홍, 나지완의 안타가 이어진 뒤에는 이병호가 손맛을 보였다.

SK가 선발 다이아몬드를 강판 시키고 채병용을 투입했지만 워밍업 끝난 KIA 방망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대타 신중길과 ‘막내’ 최원준이 연속 2루타로 득점을 보냈고, 이어 친정을 찾은 이명기가 투런을 날리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SK가 다시 문광으로 투수를 교체했지만 KIA의 안타 행진은 김주찬의 중전안타와 버나디나의 중월 투런포까지 이어졌다. 행운도 따랐다. 최형우의 타구가 투수 맞고 유격수 쪽으로 향하면서 내야안타가 기록됐다. 다시 안치홍의 안타가 이어지면서 KIA는 아웃카운트 하나 없이 11타자 연속 안타에 성공했다. 앞선 8타자 연속 안타 기록을 훌쩍 뛰어넘은 신기록이었다. 여기에 12명이 연달아 홈을 밟으면서 종전 기록인 11명 연속 득점 기록까지 새로 썼다.

또 KIA는 연속 타자 출루(12명), 한 이닝 최다 안타(11개) 타이 기록도 동시에 작성했다. 3개의 홈런을 포함한 11안타를 연달아 터트린 KIA는 순식간에 1-12의 승부를 13-12로 뒤집는 기적 같은 장면을 연출했다.

기록의 팀으로 다시 한번 이름을 날리기는 했지만 아침에 이날 경기의 승리는 SK의 몫이었다. 5회부터 마운드를 책임진 한승혁이 2.2이닝 2볼넷 6탈삼진 무실점의 호투로 분위기를 이었지만 김윤동과 임창용이 7·8회를 깔끔하게 책임지지 못하면서 17-18의 재역전패가 기록됐다.

패배는 아쉬웠지만 ‘해태 왕조’ 전성기를 압도하는 뜨거운 화력으로 팬들을 환호하게 한 ‘특별한 경기’였다.

KIA의 공세에 레나도·김대우·페트릭(이상 삼성), 소사·허프·임찬규(이상 LG), 켈리(SK)는 힘겨운 하루를 보내며 쓴 패배를 안았다. 특히 페트릭은 14실점이라는 KBO 역대 선발 최다 실점이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에 이름을 남기게 됐고, KBO 6월 MVP인 켈리도 9연승 중단과 개인 최다 9실점이라는 아픔을 겪었다.

안방에서 점화해 잠실-문학을 초토화한 ‘메가 타이거즈포’가 수원에서 만들어진 점수에 팬들의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위부터 최형우, 김선빈, 이명기, 나지완, 김민식.

▶위부터 이병호, 서동욱, 김주찬, 버나디나, 안치홍.

